

독일 소설 담화의 (자유) 직접 이야기재현의 한국어 번역:

요한나 슈피리의『하이드』한국어 번역본 비교분석

Korean Translation of (Free) Direct Reported Speech of German Novel Discourse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Translated Versions of Johanna Spyri's *Heidi*

김형민¹

Hyeong Min Kim^{1*}

요약

“발언 속의 발언, 발화 속의 발화이자 동시에 발언에 관한 발언, 발화에 관한 발언”(Vološinov 1986:115)으로서의 ‘이야기재현’이란 인간언어의 보편적인 속성에 속한다. 그에 걸맞게 이야기재현에 관한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물도 상당한 정도로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어 원천 문학텍스트에 나타난 다양한 유형의 이야기재현 양상이 한국어 번역본에서 번역자가 어떤 번역 전략을 가지고 번역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본 연구는 다음 질문에 관심을 집중한다. 첫째, 독일어 원천 문학텍스트의 직접 이야기재현과 자유 직접 이야기재현이 한국어 번역텍스트에서 어떻게 번역되는가? 둘째, 직접 이야기재현과 자유 직접 이야기재현이 한국어 번역본에 따른 번역상의 차이가 번역자의 번역전략으로 기술·설명·해석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들에 대한 수용 가능한 답을 찾고자 스위스 여류 소설가 요한나 슈피리의 아동·청소년 문학작품『하이드』를 분석한다.

핵심어: 번역전략, 요한나 슈피리, 이야기재현, 이야기재현 의사소통 모델, 하이드

Abstract

The 'reported speech' which is "speech within speech, utterance within utterance, and at the same time also speech about speech, utterance about utterance"(Vološinov 1986:115) belongs to a universal property of human languages. Correspondingly, studies on reported speech have a long tradition, and their research findings have been accumulated to a large extent. Yet very few academic studies have been done to explain and demonstrate strategies of translation regarding reported speech in Korean translated versions of foreign

1 Department European Language and Cultures, Sogang Univ., 35 Baekbeom-ro, Mapo-gu, Seoul, 04107, Korea
e-mail: kimhyeongmin@hotmail.com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2001).
Received(April 16.2017), Review (June 06.2017), Accepted(June 30.2017)

literary works.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how are 'direct reported speech' and 'free direct reported speech' in German literary texts translated in Korean translated versions? Second, can the translation difference of 'direct reported speech' and 'free direct reported speech' in Korean translated versions be described, explained and interpreted through translation strategies of translators? To find acceptable responses to the questions this study analyses the literary work of children and youth Heidi by the Swiss lady of letters Johanna Spyri.

Keyword: Strategy of Translation, Johanna Spyri, Reported Speech, Communicative Model of Reported Speech, Heidi

1. 들어가는 말

이야기재현 Redewiedergabe은 인간의 보편적인 언어활동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지구상의 거의 모든 자연언어가 이야기를 재현하는 고유한 언어적 표현수단 내지 표현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의 언어학자 플로리안 쿨마스 Florian Coulmas(1986:2)는 이야기재현이 자연언어의 보편적인 특성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발화는 다른 발화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발화 자체가 비판되거나, 질문되거나, 언급되거나, 단순히 보고 될 수 있다. 언어는 언어를 가리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자연언어에 적용되며, 실제로 인간 언어의 기본 특성이다. 어떤 기호체계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인간 언어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Utterances can be made the subject of other utterances. They can be criticized, questioned, commented on, or simply be reported. Language can be used to refer to language. We can talk about talk. This is true for all natural languages and is, indeed, a fundamental feature whose absence disqualifies any sign system as a human language.[1]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면, 이야기를 재현하는 언어적 표현수단 내지 표현방식은 인간 언어를 인간 언어답게 만드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야기를 재현하는 인지적 의사소통능력은 인간의 언어능력 Sprachkompetenz을 구성하는 핵심구성성분이다. 독일의 언어학자 디터 분더리히 Dieter Wunderlich(1972:185)는 인간의 이야기재현 능력과 인간의 언어능력 사이

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발화상황을 언어적으로 재구성하여, 그것을 제3자에게 이야기하는 능력이 인간의 언어능력을 구성하는 하나의 핵심 구성요소임은 분명하다.

Ein zentraler Bestandteil der menschlichen Sprachkompetenz ist offensichtlich die Fähigkeit, selbsterfahrene Redesituationen sprachlich zu rekonstruieren und zu anderen darüber zu sprechen.[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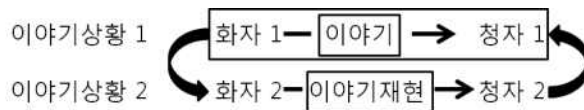
본 연구는 '이야기재현'이란 언어보편적 sprachuniversal 현상과 관련하여 특히 다음 질문에 관심을 집중한다. 첫째, 독일어 원천 문학텍스트의 직접 이야기재현 direkte Redewiedergabe과 자유 직접 이야기재현 freie direkte Redewiedergabe이 한국어 번역텍스트에서 어떻게 번역되는가? 둘째, 동일한 독일어 원천 문학텍스트를 번역한 한국어 번역텍스트들이 직접 이야기재현과 자유 직접 이야기재현의 번역과 관련하여 서로 차이를 보이는지, 차이를 보인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셋째, 직접 이야기재현과 자유 직접 이야기재현의 번역상의 차이가 번역이란 재맥락화 Rekontextualisierung 과정에 개입된 번역자의 번역전략 Übersetzungsstrategie으로 기술·설명·해석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가능한 대답을 본 연구자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찾고자 한다. 본 연구가 실증적 분석을 위해 선택한 독일어 텍스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위스 여류 소설가 요한나 슈피리 Johanna Spyri(1827-1901)의 아동·청소년 문학작품『하이디 Heidi』이다.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디』는 한국에서 널리 읽힌, 읽히고 있는, 읽힐 문학작품으로 여러 번역자들(김영진(2006), 한미희(2006), 김형민(2007) 등)에 의해 완역본 형태로 출간되었다. 따라서 동일 독일어 원천텍스트의 한국어 번역본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번역자가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번역전략을 추론하여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하이디』에서는 독일어 직접 이야기재현과 자유 직접 이야기재현의 모든 형식적·구조적 특성을 보여주는 예들이 발견된다. 이는 독일어 직접 이야기재현과 자유 직접 이야기재현의 각 유형이 한국어 번역텍스트에서 주로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유형화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에서 번역자가 한국인 독자를 겨냥한 텍스트의 재맥락화 과정에서 새로운 문체화과정 Stilisierung 혹은 미학적 형상화과정 Ästhetisierung을 유추하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독일어 원천텍스트와 한국어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 (1) Spyri, Johanna (2000): Heidis Lehr- und Wanderjahre. Mit vielen Zeichnungen von Tomi Ungerer. Zürich. (이하: Spyri(2000))
- (2) 슈피리, 요한나 (저)/ 김영진 (역) (2006): 하이다. 서울. 시공사. (이하: 김영진(2006))
- (3) 슈피리, 요한나 (저)/ 김형민 (역) (2007): 하이다. 서울. 교원. (이하: 김형민(2007))
- (4) 슈피리, 요한나 (저)/ 한미희 (역) (2006): 하이다. 서울. 비룡소 (이하: 한미희(2006))

2. 이야기재현 의사소통 모델

‘이야기재현’이란 무엇인가? 인지적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이야기재현’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면, 독일의 언어학자 게르하르트 카우프만 Gerhard Kaufmann (1973:13)의 이야기재현 모델이 특히 관심을 끈다. 그는 ‘이야기재현’이란 인지적 의사소통 활동의 전제로 두 개의 이야기상황 Sprechsituation을 상정했다. 카우프만에 따르면 이야기재현이란 한 이야기상황의 전반적인 정보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른 이야기상황에서 언어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다.[3] 본 연구자는 카우프만의 모델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소위 ‘이야기재현 의사소통 모델 kommunikatives Modell der Redewiedergabe’을 제안한다.



[그림 1] 이야기재현 의사소통 모델

[Fig. 1] Communicative Model of Reported Speech

<이야기재현 의사소통 모델>은 다음과 같은 인지적 의사소통적 이야기재현의 과정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이야기상황 1에서 원천 이야기 Originaläußerung의 화자 1이 대화상대자인 청자 1에게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상황 2에서 화자 2는 청자 2에게 화자 1이 이야기 상황 1에서 행한 원천 이야기와 그 의사소통과정에 관련한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야기재현 의사소통 모델>의 왼쪽 구부러진 화살표는 화자 2가 이야기상황 1을 파악하고 있으며, 원천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한편 오른쪽 구부러진 화살표는 다음을 나타낸다. 즉, 청자 2는

화자 2가 이야기상황 1의 전반적인 정보, 다시 말해 이야기상황 1에서 실현된 이야기 자체 또는 이야기의 내용 및 그에 관여한 의사소통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인식한다(김형민 2005:43 이하 참고).[4]

본 연구자는 <이야기재현 의사소통 모델>의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인다. 첫째, 김형민(2005:44 참고)에 따르면, 이야기상황 1의 '이야기'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언어적으로 실제 행해진 이야기일 수도, 언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채 단지 머릿속에서 생각이나 느낌으로만 머무른 상상의 이야기일 수도, 추후에 행해질 것으로 예측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8] 둘째, 이야기상황 1과 이야기상황 2의 설정은 원천 이야기가 이야기 된/될 시점 및 공간과 시간적-공간적 간격을 두고 재현됨을 보여준다. 셋째, 김형민(2005:50이하 참고)은 이야기상황 2의 '이야기재현'과 관련하여 화자 2가 원천 이야기를 재현하는 방식에 있어 수많은 변이형이 있음을 강조한다. 변이형 스펙트럼의 양극단에는 구체성과 실제성이 매우 높은 '언어 형식 그대로의 이야기재현 de dicto-Redewiedergabe' 방식과 추상성과 객관성이 매우 높은 '내용의 이야기재현 de re-Redewiedergabe' 방식이 위치하며, 그 양극단 사이에는 원래 이야기에서 벗어난 정도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이야기재현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4] 넷째, 카우프만(1976:14 이하 참고)에 따르면, 이야기재현에 관여하는 의사소통 참여자들 사이에 다양한 동일성관계/동일인관계 Identitätsbeziehung가 성립할 수 있다.[3] 예를 들어, 4명의 참여자, 즉 화자 1, 청자 1, 화자 2, 청자 2가 모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화자 2가 화자 1일 수도 있고, 화자 2가 청자 1일 수도 있고, 의사소통상황 1에서 혼자말의 경우 화자 1이 청자 1일 수도 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개의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다.

3. '번역은 반역인가!' 또는 '번역은 제2의 창조인가!'

오토 카데 Otto Kade(1927-1980)는 게르트 예거 Gert Jäger, 알브레히트 노이베르트 Albrecht Neubert 등과 함께 라이프치히 번역학 학파 Leipziger Schule der Übersetzungswissenschaften를 이끈 대표적 인물 중 한 사람이자, 독일 번역학 분야의 대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1968년에 출간된 『번역의 가능성과 규칙성 Zufall und Gesetzmäßigkeit in der Übersetzung』에서 Translation을 Übersetzen과 Dolmetschen의 상위개념 Hyperonym으로 도입했다. 오토 카데에 따르면 '한 언어의 텍스트를 다른 언어의 텍스트로 옮기는 활동'은 크게 한 언어의 문어 텍스트

geschriebener Text를 다른 언어의 문어 텍스트로 옮기는 '번역(활동) Übersetzen'과 한 언어의 구어 텍스트 gesprochener Text를 다른 언어의 구어 텍스트로 옮기는 '통역(활동) Dolmetschen'으로 나뉜다(Prunč 2012:15 이하 참고).[5] 본 논문에서는 오토 카데가 독일의 번역학 분야에 도입한 용어 Translation를 '한 언어의 텍스트를 다른 언어의 텍스트로 옮기는 활동' 또는 '통번역(활동)'이라고 일컫는다. 한편 '통번역(활동)'에서 통번역되는 언어는 '출발언어 Ausgangssprache(=AS)'로, 통번역되는 텍스트는 '출발언어의 텍스트 Ausgangssprache-Text(=AS-Text)'로, 통번역된 언어는 '목표언어 Zielsprache(=ZS)'로, 통번역된 텍스트는 '목표언어의 텍스트 Zielsprache-Text(=ZS-Text)'로 불린다.

'한 언어의 텍스트를 다른 언어의 텍스트로 옮기는 활동' 중, 특히 번역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스펙트럼의 한 쪽 끝자락에는 '번역활동'을 불가능하게 여기는 지극히 부정적인 견해가, 다른 쪽 끝자락에는 '번역활동'을 온전히 가능하다고 보는 매우 긍정적인 견해가 위치한다. 두 극단적인 견해 사이에 '부정성/긍정성'의 정도 차이를 보이는 일련의 견해들이 자리를 잡는다. '번역활동'의 한계를 강조하여 언급할 때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트라두토레 트라디토레 traduttore traditore'란 이탈리아어의 언어유희 Wortspiel가 있다. 이 언어유희는 시니피앙 signifiant은 유사하지만 시니피에 signifié는 서로 무관한 낱말들을 중첩시켜 '의미상의 극적인 대조'란 수사적·문체적 효과를 이끌어 내는 유음중첩법(類音重疊法) Paronomasie을 활용한다(Wilpert 1989:663 참고).[6] 이탈리아어의 경구 '트라두토레 트라디토레'에서는 '번역자'의 뜻을 가진 '트라두토레'와 '반역자'란 뜻을 가진 '트라디토레'는 모음 하나의 차이를 제외하면 동일한 음성 환경 phonetische Umgebung에서 실현된다. 이 수사학적 표현의 자구적 의미 wörtliche Bedeutung는 '번역자, 반역자'이다. 이를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번역자는 반역자이다 Ein Übersetzer ist ein Verräter'가 된다. 이 은유적 표현은 한 언어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해당 언어의 텍스트를 다른 언어의 텍스트로 완벽하게 담아내는 것이 너무 어려워 번역자가 의도치 않게 원전 텍스트를 훼손하는 반역자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Cho 2016:227 참고).[7] 한편 '번역활동'이 한 언어권에 존재하지 않는 텍스트를 존재하게 하는, 다시 말해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창조적인 창작임을 강조하기 위해, '번역은 제2의 창작이다 Die Übersetzung ist eine zweite Schöpfung'라는 비유적 표현이 종종 언급된다. 이 은유적 표현은 '번역활동'이 해당 언어권의 문화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번역텍스트가 원전텍스트의 창작에 못지않은 독자적이고 고유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번역이

제2의 창작이다'라는 입장과 관련하여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번역은 번역자가 원천텍스트에서 출발하여 목표언어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텍스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번역자는 결코 번역 텍스트의 저자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통번역학 분야의 캐나다 학자 장 드릴 Jean Delisle(1988:20)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번역자는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해서는 결코 안 된다. 번역자는 원천텍스트와 원저자의 생각을 제멋대로 변경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 the translator is never free to express his or her own thoughts. The translator is not free to take liberties with the source text and the original author's ideas.[8]

그런데 번역이 반역이나 또는 번역이 제2의 창작이냐는 논쟁은 한낱 부질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번역자가 어떤 번역전략 Übersetzungsstrategie을 가지고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 번역 활동이 반역이 될 수도, 제2의 창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번역활동'은 단순히 출발언어의 문어 텍스트를 목표언어의 문어 텍스트로 옮기는 일방통행의 코드전환 code switch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또는 언어를 문화의 산물로 간주하여, '번역활동'이 한 언어권의 문화를 다른 언어권의 문화로 옮기는 일방통행의 문화전파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번역활동'은 출발언어의 텍스트와 목표언어의 텍스트 그리고 출발언어의 문화와 목표언어의 문화 사이의 쌍방통행에 기초한 역동적인 언어적·문화적 상호작용의 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번역자는 원천텍스트의 저자와 목표언어의 독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간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번역자는 출발언어와 목표언어에 능통해야 하고, 출발언어권의 문화와 목표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번역자는 원천텍스트의 저자에게는 청자로서의 역할을, 목표언어의 독자에게는 화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번역자는 원천텍스트의 저자와 목표언어의 독자 사이의 '무언(無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중간자의 역할을 한다. 이때 중간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번역자의 번역은 반역이 될 것이고, 중간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번역자의 번역은 제2의 창작이 될 것이다.

4. 『하이디』의 작가 요한나 슈피리

4.1 요한나 슈피리의 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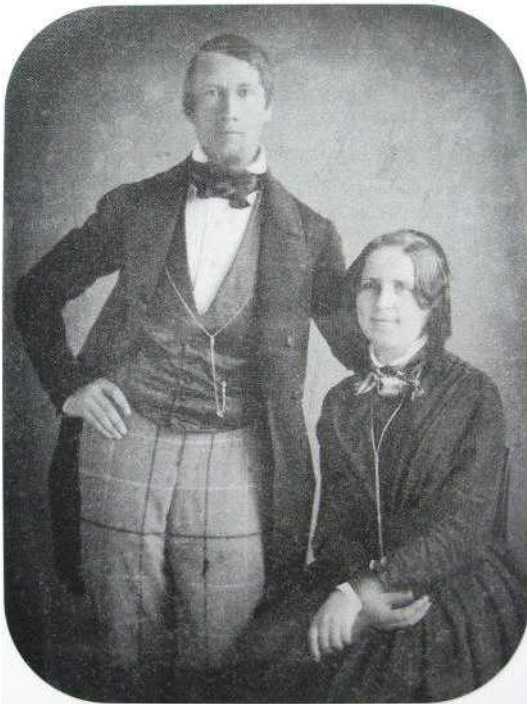


[그림 78] 요한나 슈피리(1870년대)
[Fig. 2] Johanna Spyri (in the 1870s)

요한나 슈피리(결혼 전 이름은 요한나 루이제 호이서 Johanna Louise Heusser임)는 1827년 6월 12일 스위스 취리히 Zürich 근교의 작은 마을 히르첼 Hirzel에서 의사인 요한 야콥 호이서 Johann Jakob Heusser(1783-1859)와 종교 시인인 메타 호이서 슈바이처 Meta Heusser-Schweizer(1797-1876)의 육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그녀는 고향인 히르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15살 때 취리히로 가서 학교를 다녔다. 그녀는 취리히에서의 학창 시절에 18세기 독일 계몽주의 작가 고트홀트 에프라임 레싱 Gotthold Ephraim Lessing(1729-1781), 독일 문학의 거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1749-1832), 19세기 비더마이어 Biedermeier 시대의 대표적인 여류 시인 안네테 폰 드로스테 뢰스호프 Annette von Droste-Hülshoff(1797-1848) 등과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즐겨 읽었다. 그녀는 17살이 되던 1844년부터 2년 동안 스위스의 프랑스어 사용지역 이베르동

Yverdon의 기숙학교에서 프랑스어를 배웠다. 그 후 그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18세에서 25살까지 어린 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어머니의 가사 일을 도왔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손에서 떼지 않을 정도로 문학을 향한 그녀의 열정이 컸다(Schindler 2004:46 참고).[9] 1851년 요한나는 독일의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 Richard Wagner(1813-1883)와 절친한 친구관계를 유지하던 법률가이자 신문사 편집장 베른하르트 슈피리 Bernhard Spyri(1821-1884)와 약혼했다. 요한나는 이듬해 9월 9일 베른하르트와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을 따라 취리히로 거처를 옮겼다. 1855년 8월 17일 슈피리 부부 사이에서 외동아들 베른하르트 디트헬름 슈피리 Bernhard Diethelm Spyri가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1884년 5월 3일 28살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같은 해 12월 19일 요한나의 남편 베른하르트도 취리히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때 요한나의 나이는 57세였다. 1901년 그녀가 암에 걸렸을 때, 그녀는 스위스 최초의 여의사 마리 하임 뢰크트린 Marie Heim-Vögtlin(1845-1916)에게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스위스가 낳은 세계적인 여류작가는 1901년 7월 7일 74세의 나이로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취리히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취리히의 질펠트 공동묘지 Züricher Friedhof Sihlfeld에 영면했다.[10-11]



[그림 3] 베른하르트 슈피리와 요한나 호이서 (1852)
[Fig. 3] Bernhard Spyri and Johanna Heusser (1852)



[그림 4] 요한나 슈피리와 베른하르트 디트헬름
[Fig. 4] Johanna Spyri and Bernhard Diethel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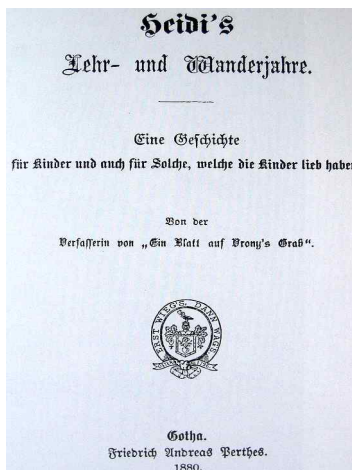
4.2 아동·청소년 문학의 고전『하이드』

요한나 슈피리는 1871년 작가로 데뷔하여 1901년 사망할 때까지 30여 년 동안 60여 권 이상의 문학작품을 세상에 남겼다. 요한나가 세상에 남긴 작품들 중 그녀를 베스트셀러 작가, 롱셀러 작가,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로 올린 작품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는 『하이드』이다. 오늘날 아동·청소년 문학의 고전으로 확고한 위상을 자리 잡은 『하이드』는 제1부와 제2부

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는 그녀가 53세가 되던 1880년에 출간된 『하이디의 수업시대와 편력시대 Heidis Lehr- und Wanderjahre』이며, 제2부는 1881년에 출간된 『하이디는 배운 것을 사용할 줄 안다 Heidi kann brauchen, was es gelernt hat』이다. 『하이디』의 제1부와 제2부는 고타에 위치한 프리드리히 안드레아스 페르테스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는데, 제1부의 초판에서는 작가의 이름이 “<브로니 무덤 위의 나뭇잎>의 작가 Von der Verfasserin von ‚Ein Blatt auf Vrony's Grab’”로 인쇄되었다. 『하이디의 수업시대와 편력시대』의 초판이 시장에 나오자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하이디』 제1부의 제2판은 초판이 간행된 같은 해인 1880년에 5,000부가 인쇄되고, 제 3판은 그 다음해에 5,000부가 출판되었다(Leimgruber 2001:168 참고).[12] 그런데 『하이디의 수업시대와 편력시대』의 제3판(1881)부터는 ‘익명’이 아닌, “Johanna Spyri”가 저자 이름으로 인쇄되기 시작했다. 한편 『하이디』의 제2부인 『하이디는 배운 것을 사용할 줄 안다』는 『하이디의 수업시대와 편력시대』와 달리 초판부터 작가의 이름이 “Johanna Spyri” 실명으로 인쇄되었다.

『하이디』제1부의 제목 ‘하이디의 수업시대와 편력시대’는 괴테의 작품 『빌헬름 마이스터 Wilhelm Meister』의 제1부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Wilhelm Meisters Lehrjahre』(1795/1796)와 제2부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 Wilhelm Meisters Wanderjahre』(1821)를 연상시킨다. 괴테의 작품을 즐겨 읽던 요한나 슈피리가 『빌헬름 마이스터』를 문학적 모델로 『하이디의 수업시대와 편력시대』를 집필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Hurrelmann 1997:191 참고).[13] 『하이디의 수업시대와 편력시대』는 하이디가 알프스 고원에서의 전원생활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Frankfurt am Main에서의 도시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전자의 생활이 하이디의 수업시대에 해당하며, 후자의 생활이 하이디의 편력시대에 해당된다(Kümmerling-Meibauer 2004:1015 참고).[14] 또한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와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가 하이디의 제1부 『하이디의 수업시대와 편력시대』의 제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다(Skrine 1994:149 참고).[15] 게다가 요한나는 『하이디의 수업시대와 편력시대』를 집필하기 전에 남편 베른하르트, 아들 베른하르트 디트헬름, 그녀의 친구 딸인 헤트비히 카펠러 Hedwig Kappeler(1860-1932)과 함께 ‘괴테의 빌헬름’처럼 이탈리아, 독일, 엘자스 Elsass 지방을 여행했다. 헤트비히 카펠러는 요한나 슈피리의 여자친구 알리네 카펠러-뷔스트 Aline Kappeler-Wüst(1823-1923)의 딸로 1876-1878년에 요한나의 집에 머물면서 취리히에 소재한 여자고등학교 ‘회어레 퇴히터슐레 Höhere Töchterschule’에 다녔다. 그녀는 훗날 스위스의 여권신장운동 Frauenbewegung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Schindler 2004: 45 참고).[9]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요한나 슈피리를 독일어권 작가를 넘어 일약 세계적인 작가로 활동 무대를 넓혀준『하이디』는 판매부수에 있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하이디』는 지금까지 5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한다. 물론 여기에서 지나쳐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 전 세계 시장에서 5천만 부 이상 팔린『하이디』는 독일어 원작, 다른 언어의 완역본을 포함하여 축약판, 그림책, 다른 작가에 의해 각색되거나 개작된 작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Leimgruber 2001:168 참고).[9] 아무튼『하이디』는 오늘날까지도 결코 절판되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마치 '다년생 식물 perennierende Pflanze'처럼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Eaton 1969:177; Leimgruber 2001:168 참고).[12][16]



『하이디 수업시대와 편력시대』초판(1880)의 속표지(오른쪽)

『하이디는 배운 것을 사용할 줄 안다』제2판(1883)의 표지(왼쪽)

『하이디』는 1살 때 양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주인공 하이디의 이야기이다. 작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하이디』의 제1부『하이디의 수업시대와 편력시대』는 하이디가 알프스 고원에서의 생활과 프랑크푸르트에서의 도시생활을 이야기의 중심으로 삼는다. 하이디는 1살에 부모를 모두 잃고, 5살까지 이모 데테 Dete와 외할머니의 손에서 성장한다. 하이디가 4살 때 외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이모는 일자리를 위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떠나야 한다. 그래서 하이디는 세상 사람들과 단절한 채 알프스 고원의 오두막집에서 홀로 사는 친할아버지에게 맡겨진다. 이렇게 하이디의 알프스 고원생활이 시작된다. 하이디는 이모를 따라 할아버지의 오두막집으로 가던 날,

산길을 오르던 도중에 염소치기 페터 Peter를 만난다. 그 이후 하이디와 페터는 친구 사이가 된다. 하이디는 알프스 고원의 초원에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한다. 또한 하이디는 페터의 가족, 눈이 먼 페터의 할머니와 페터의 어머니 브리기테 Brigitte와도 잘 지낸다.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행복한 알프스 고원 생활을 누린다.

어느덧 3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이디는 8살이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이모 데테가 할아버지의 오두막집에 갑자기 나타난다. 하이디는 이모의 손에 이끌려 역지로 프랑크푸르트의 부유한 사업가 제제만 Sesemann의 집에 가게 된다. 이모는 제제만의 병약하고 휠체어 생활을 하는 딸 클라라 Klara의 말동무로 하이디를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이디의 도시 생활이 시작된다. 하이디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배려심이 많은 제제만, 자신을 친구를 받아들인 클라라, 하이디가 글을 깨우치고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해준 이해심 많은 클라라 할머니와 만난다. 그러나 하이디에게 갑갑하고 답답한 도시 생활은 감옥 생활과 다름이 없다. 하이디는 알프스의 고원 생활을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워한다. 하이디의 향수병은 급기야 몽유병으로 발전한다. 제제만은 친구인 의사와 하이디의 병에 대해 상의하고, 치료를 위해 하이디를 할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결정을 내린다.

하이디는 마침내 할아버지가 있는 알프스 고원으로 다시 돌아오고, 할아버지의 보살핌으로 다시 활력을 되찾는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글을 배운 하이디는 페터의 할머니에게 찬송가책을 읽어 주며 큰 기쁨을 준다. 게다가 하이디는 할아버지가 다시 교회에 나가도록 가고 역할을 한다.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서로 화해를 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게 된다. 하이디가 알프스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클라라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는다. 편지는 가을에 클라라와 클라라 할머니가 하이디를 방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이디』의 제2부『하이디는 배운 것을 사용할 줄 안다』는 하이디를 만나기 위해 할아버지의 오두막집을 방문한 클라라가 알프스의 고원생활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걷게 되며, 딸을 여윈 슬픔을 안고 있는 제제만의 친구 의사가 하이디를 양녀로 삼는 이야기로 구성된다. 클라라는 하이디가 있는 알프스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하나, 제제만은 선뜻 승낙하지 못하고 망설인다. 그 이유는 9월의 쌀쌀한 알프스의 기후가 클라라에게 좋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제만은 친구인 의사에게 하이디를 먼저 방문하여 그곳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부탁을 한다. 의사는 친구 제제만의 부탁에 난색을 표하나, 클라라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지 못한다. 딸을 잃은 슬픔으로 몸과 마음이 상한 의사는 클라라의 소식을 가지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이디와 할아버

지를 방문한다. 의사는 할아버지의 제안에 따라 산 아래 마을에 숙소를 정한다. 의사는 매일 고원을 올라 하이디와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할아버지와 산책을 하면서 자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다. 9월의 막바지에 의사는 하이디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간다.

겨울이 되자, 할아버지는 하이디를 데리고 오두막집에서 산 아래 마을로 거처를 옮긴다. 그곳에서 겨울동안 하이디는 페터에게 읽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페터는 서툴지만 어느 정도 글을 읽게 된다.

5월이 되어 날이 풀리자 할아버지와 하이디는 알프스 고원의 오두막집으로 다시 올라간다. 6월 하순의 어느 날, 클라라와 클라라의 할머니는 하이디와 할아버지를 방문하기 위해 오두막집에 도착한다. 그날 저녁 클라라는 할머니를 설득하여 하이디와 함께 오두막집에 머물고자한다. 그때 할아버지가 클라라를 옆에서 거든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신뢰하여, 클라라를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산을 내려간다. 이렇게 클라라의 알프스 고원 생활이 시작된다.

클라라는 알프스의 대자연 환경 속에서 건강을 되찾고, 드디어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걸을 수 있게 된다.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나고, 클라라의 할머니가 다시 오두막집을 찾는다. 그런데 할머니의 눈앞에서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이 펼쳐진다. 클라라가 할머니를 향해 걸어온다. 할머니는 하이디의 할아버지에게 고마움을 표현한다. 제제만은 사업상의 일을 마치고, 클라라를 놀래줄 깜짝 쇼를 계획한다. 그는 기별도 하지 않고 알프스로 향한다. 그러나 제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훌륭한 깜짝 쇼이다. 클라라의 걷는 모습을 본 제제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하이디는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클라라 가족과 아쉬운 이별을 한다. 하지만 새로운 만남이 기다린다. 제제만의 친구인 의사가 하이디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산 아래 마을에 정착한다. 그리고 의사는 하이디를 양녀로 받아들인다.

5. 소설 담화의 직접 이야기재현과 자유 직접 이야기재현의 번역

언어학의 문법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천 이야기가 어느 정도로 충실하게 재현되느냐, 재현된 이야기가 어떤 문법적·형식적 수단으로 표현되느냐 등에 따라 이야기재현을 크게 '직접 이야기재현 direkte Redewiedergabe', '자유 직접 이야기재현 freie direkte Redewiedergabe', '간접 이야기재현 indirekte Redewiedergabe', '자유 간접 이야기재현 freie indirekte Redewiedergabe',

‘이야기보고 Redebericht’ 등의 다섯 가지로 유형화한다.[4] 그러나 각 유형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긋는 것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다.

문학작품, 특히 소설 담화 novel discourse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유형의 이야기재현 양상이 관심을 끈다. 러시아의 문학자이자 언어학자인 발렌틴 볼로쉬노프(Valentin Vološinov, 1895-1936)는 1929년 러시아어로 펴낸 그의 대표적인 저서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Marxism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1986)에서 소설 담화에 나타나는 이야기재현의 양상을 직접 담화 direct discourse, 간접담화 indirect discourse, 의사직접담화 quasi-direct discourse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Vološinov 1986:141 이하 참고).[17] 그런데 본 연구는 지면의 문제로 소설 담화에 나타나는 여러 유형의 이야기재현 중에서 직접 이야기재현과 자유 직접 이야기재현에만 국한하여 기술한다. 나머지 유형의 이야기재현에 대한 논의는 후속 논문에서 다룰 것이다.

5.1 소설 담화의 직접 이야기재현 구문

직접 이야기재현은 전통적으로 ‘전달화자가 자신의 대화상대자에게 원화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직접 이야기재현에서는 “보고되는 발화의 내용적 충실성과 외적 형식의 충실성 fidelity not only to the content but also to the surface form of the reported utterance”(Coulmas 1986:11), 심지어는 “원화자의 말을 그대로 재생산하거나 흉내 내는 것 reproducing or mimicking the speech of the reported speaker”(Li 1986:40)이 강조된다.[1][18] 그러나 ‘원천 이야기 그대로의 충실한 재현’은 실제 인간의 언어생활에서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이상화된 전제일 것이다. 볼로쉬노프가 강조했듯이, “보고된 이야기는 발언 속의 발언, 발화 속의 발화이자 동시에 발언에 관한 발언, 발화에 관한 발화이다. Reported speech is speech within speech, utterance within utterance, and at the same time also *speech about speech, utterance about utterance*.”(Vološinov 1986:115).[15] 그러므로 직접 이야기재현이라 하더라도 재현되는 이야기 wiedergegebene Rede와 재현하는 이야기 wiedergebende Rede 사이에는 대략적인 유사성만이 있을 뿐이지 완전한 동일성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는 두 이야기가 실현되는 상황-의미적 맥락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현되는 이야기는 원래의 상황-의미적 맥락에서 탈맥락화 Dekontextualisierung하여 새로운 상황-의미적 맥락으로 들어가 재맥락화 Rekontextualisierung한다(Günthner 1997:229 참고).[19]

이와 같은 이야기재현의 탈맥락화 과정과 재맥락화 과정은 번역작업의 전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번역은 원천텍스트가 언어·문화적 경계를 넘어 다른 언어의 새로운 텍스트로 전환되는 코드 전환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번역자는 우선 원천텍스트를 원래의 상황·의미적 맥락에서 고집어내는 탈맥락화 작업을 한다. 그런 다음에 번역자는 원천텍스트의 생성 시기 및 생성 장소와 시간적·공간적 간격을 두고 존재하는 새로운 언어문화권의 독자와 소통을 위해, 번역자 나름의 번역전략을 가지고 원천텍스트의 언어코드를 전환시켜 새로운 상황·의미적 맥락으로 재맥락화하는 작업을 한다. 본 연구는 독일어 소설 담화의 직접 이야기재현과 자유 직접 이야기재현이 한국어로 코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재맥락화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독일어 직접 이야기재현 구문의 전형적인 형태는 '전달화자 referierender Sprecher + 피전달문을 유도하는 의사전달동사인 inquit-요소 + (전달화자의 청자) + 인용부호 Anführungszeichen + 1개의 피전달문'이다.

1. a. Aber Heidi schrie laut auf: »Nein, Peter, nein, du musst ihn nicht schlagen, sieh, wie er sich fürchtet!« (Spyri 2000:48)
- b. 그때 하이디가 소리를 질렀다. "안 돼, 페터! 그러지 마. 때리지 말라고. 잔뜩 겁먹고 있잖아." (김영진 2006:66)
- c. 그때 하이디가 끼어들며 소리를 질렀다. "안 돼, 페터, 안 돼. 당돌이를 때리지 마! 자, 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잖아." (김형민 2007:71)
- d. 하이디가 소리를 질렀다. "안 돼, 페터. 안 돼. 당돌이를 때리지 마. 무서워하잖아!" (한미희 2006:66)

(1a)는 독일어 직접 이야기재현 구문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1a)의 이야기장면은 페터가 염소 당돌이를 회초리로 때리려고 하자 하이디가 큰 소리로 말하는 상황을 묘사한다. 독일어 inquit-요소 'schrie laut auf'의 축자적 번역은 '크게 소리를 질렀다'이다. 그런데 (1c)는, (1b)와 (1d)와 달리, 이야기상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원천텍스트에 없는 양태 표현 '끼어들며'를 집어넣어 재맥락화한다.

2.
 - a. Am folgenden Tag, ... , trat Heidi mit seinem Buch unter dem Arm herein und sagte: »Ich will dir nun immer, immer vorlesen; willst du, Klara?«
 - b. 다음 날 [...] 하이디는 자기 그림책을 가지고 와서 클라라에게 물었다. "클라라, 이제 부터는 내가 늘 책을 읽어 줄게. 어떻게 생각해?" (김영진 2006:218)
 - c. 다음날 [...] 하이디는 자기 그림책을 옆구리에 끼고 와서는 클라라에게 물었다. "이제 부터는 네가 원한다면 내가 늘 책을 소리 내어 읽어 줄게. 그럴까, 클라라?" (김형민 2007:233)
 - d. 다음 날 [...] 하이디는 책을 갖고 와서 말했다. "책을 읽어 줄게. 늘 읽어 줄게. 그럴까, 클라라?" (한미희 2006:209)

독일어 직접 이야기재현 구문의 전형적인 형태의 변이형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피전달문이 2이상의 문장 내지 발화로 구성될 수 있다. 이 예가 (2a)이다. (2a)의 피전달문은 1개의 평서문과 1개의 의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2a)의 이야기장면은 하이디와 클라라가 수업을 마치고 둘만 오붓이 함께 했을 때, 하이디가 클라라에게 말하는 상황을 묘사한다. 독일어 inquit-요소 'sagte'의 축자적 번역은 '말했다'이다. 그런데 (2b)와 (2c)는, (2d)와 달리, 피전달문의 두 번째 문장의 성격을 고려하여 '물었다'로 재맥락화한다. 한편 (2c)는 원천텍스트의 'trat Heidi mit seinem Buch unter dem Arm herein'를 '하이디는 자기 그림책을 옆구리에 끼고 와서는'으로 최대한 충실하게 축자적으로 번역한다. 이를 통해 원천텍스트의 분위기를 보다 잘 재현한 듯하다.

3.
 - a. Klara dagegen verfolgte mit vergnügtem Gesicht die ungewöhnlichen Ereignisse und deren Wirkungen und sagte nun erklärend: »Ja, Heidi hat's gemacht, aber nicht mit Absicht, es muss gewiss nicht gestraft werden, es war nur so schrecklich eilig, fortzukommen, und riss den Teppich mit, und so fiel alles hintereinander auf den Boden. Es fuhren viele Wagen hintereinander vorbei, darum ist es so fortgeschossen; es hat vielleicht noch nie eine Kutsche gesehen.« (Spyri 2000:105)
 - b. 반면 클라라는 재미있어하는 표정으로 뜻밖에 일어난 사건과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클라라가 말했다. "맞아요. 하이디가 그랬어요.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

니까 벌을 주시면 안 돼요. 너무 급하게 뛰어나가려다 책상보까지 끌고 가 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물건들이 다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마차들이 잇따라 몇 때가 지나갔는데 그 소리를 듣더니 후닥닥 뛰어나가더라고요. 마차를 본 적이 없나 봐요.” (김영진 2006:143)

- c. 그와 반대로 클라라는 재미있어 하며 뜻밖의 사건과 그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았다. 클라라가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맞아요. 하이디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니까 혼내시면 안 돼요. 서둘러 나가려다 책상보까지 끌고 가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이 다 바닥으로 와르르 떨어진 거예요. 마차들이 잇따라 많이 지나갔는데 하이디가 그 소리를 듣더니 후닥닥 뛰어나가더라고요. 하이디는 아마 마차를 본 적이 없나 봐요.” (김형민 2007:152)
- d. 뜻밖의 사건과 그 결과를 흡족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던 클라라가 설명했다. “맞아요. 하이디가 그랬어요.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혼내진 마세요. 어딜 급히 가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만 책상보를 끌고 가서 물건들이 와르르 떨어진 거예요. 마차가 굉장히 많이 지나갔거든요. 벌에 쏘인 듯 후닥닥 뛰쳐나가더라고요. 아마 마차를 처음 보나 봐요.” (한미희 2006:139-140)

(3a)는 (2a)와 마찬가지로 피전달문이 2개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이다. (3a)의 피전달문은 클라라의 목소리를 통해 하이디가 집 밖에서 나는 마차의 소리를 바람에 흔들리는 전나무 가지 소리로 착각하고 급하게 방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벌어진 상황을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독일어 inquit-요소 'sagte nun erklärend'의 축자적 번역은 '설명적으로 말했다'이다. (3c)와 (3d)는 '설명했다'로 번역하여 원천텍스트를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하여 재맥락화한다. 그에 반해 (3b)는 '말했다'로 단순하여 번역하여, 피전달문에 대한 독자의 해석 여지가 더 많이 남은 듯하다. 한편 (3b)와 (3c)는, (3d)와 비교하여, 원천텍스트의 전달문을 최대한 충실하게 번역한다. 이를 통해 (3b)와 (3c)는 원천텍스트의 상황적 분위기를 더 잘 전달하는 듯하다.

- 4. a. »Nicht fürchten, nicht fürchten«, sagte er freundlich im Hinaufsteigen, »nur ganz ruhig sein, da ist gar nichts Schlimmes dabei, nur getrost sein.« (Spyri 2000:176)
- b. 의사 선생이 다정하게 말했다. “ 겁낼 것 없다. 겁낼 것 없어. 자, 다 괜찮으니까 마음

놓으렴. 별것 아니란다. 별것 아니야.” (김영진 2006:241)

- c. 의사 선생님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다정다감하게 말했다. “겁낼 것 없다! 하나도 겁낼 것 없어. 자, 걱정 말고 마음을 폭 놓으렴. 별일 아니란다. 마음을 폭 놓으렴.” (김형민 2007:254)
- d. 의사 선생님이 따뜻하게 말했다. “겁낼 것 없다. 겁낼 것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쁜 일이 아니야. 마음 폭 놓으렴.” (한미희 2006:227)

독일어 직접 이야기재현 구문에서 inquit-요소를 포함한 상위문장 übergeordneter Satz이 피전달문에 삽입될 수 있다. 그 예가 (4a)이다. 다시 말해, 상위문장인 ‘sagte er freundlich im Hinaufsteigen’이 피전달문에 삽입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어 번역텍스트는 독일어 원천텍스트의 구문과 달리 inquit-요소를 포함한 상위문장을 피전달문 앞에 위치시키고 있다. 이는 독자가 피전달문의 내용, 상황, 분위기에 몰입하도록, 이야기의 흐름을 끊지 않으려는 의도인 듯하다. (4a)의 이야기장면은 다음 이야기상황에서 나온다. 하이디가 할아버지와 알프스 고원에서의 생활을 너무도 그리워한 나머지 몽유병에 걸려 밤에 제제만 씨 집안을 돌아다니는 유령소동을 일으킨다. 제제만 씨와 그의 친구 의사선생님이 유령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잠복한다. 결국 의사선생님은 하이디의 향수병이 몽유병으로 발전한 사실을 밝혀내고, 하이디를 방으로 데려다 주면서 진정시킨다. (4c)는, (4b)와 (4d)와 달리, 이야기가 재현되는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 ‘im Hinaufsteigen’을 ‘계단을 올라가면서’로 번역하여 원천텍스트를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한다. (4a)의 원래 구문을 번역텍스트에 최대한 반영한다면, (4e)가 가능할 것이다.

4. e. “겁낼 것 없다. 하나도 겁낼 것 없어.”라고 의사선생님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다정다감하게 말했다. 그는 덧붙여 말했다. “자, 걱정 말고 마음을 폭 놓으렴. 별일 아니란다. 마음을 폭 놓으렴.”

독일어 직접 이야기재현 구문에서 inquit-요소를 포함한 상위문장이 피전달문에 삽입된 다른 예를 들어보자. (5a)의 이야기장면은 제제만 씨의 집안일을 보살피는 로테마이어 부인이 하이디에게 실망하여 제제만 씨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자, 제제만씨가 로테마이어 부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을 묘사한다.

5. a. »Ich glaube zwar«, bemerkte hier Herr Sesemann, »dass auch die Schweizerkinder den Erdboden berühren, wenn sie vorwärts kommen wollen; sonst wären ihnen wohl Flügel gewachsen statt der Füße.« (Spyri 2000:136)
- b. 제제만 씨가 바로잡았다. "내 생각엔 아무리 스위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 해도 어디를 다니려면 땅을 밟아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발 대신 날개가 달렸을 테죠." (김영진 2006:187)
- c. 제제만 씨는 로텐마이어 부인의 말을 반박하는 듯한 한마디를 했다. "내 생각에는 아무리 스위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 해도 어딜 가려고 하면 땅을 밟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발이 아니라 날개가 달려 있어야 하겠죠." (김형민 2007:199)
- d. 제제만 씨가 한마디 했다. "내 생각엔 스위스 아이들도 어딜 가려면 땅을 밟아야 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발이 아니라 날개가 있어야 하잖아요." (한미희 2006:179)

(5a)에서 inquit-요소를 포함한 상위문장 'bemerkte hier Herr Sesemann'이 피전달문에 삽입되어 있다. (4b-d)에서와 마찬가지로 (5b-d)는 독일어 원천텍스트의 구문과 달리 inquit-요소를 포함한 상위문장을 피전달문 앞에 위치시킨다. 이는 피전달문의 흐름을 끊어 독자가 이야기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재맥락화 과정인 듯하다. 한편 (5c)는, (5b)와 (5d)와 달리, 원천텍스트에 없는 표현 '로텐마이어 부인의 말을 반박하는 듯한'를 집어넣었다. 이는 번역자가 독자에게 이야기상황의 전후맥락을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려는 의도인 듯하다.

6. a. »Nach Frankfurt«, erklärte Dete, »da bekomm ich einen extraguten Dienst.« (Spyri 2000:11)
- b. "프랑크푸르트에 갈 거야. 거기에 아주 좋은 자리가 났거든." (김영진 2006:14)
- c. 데테가 설명했다. "프랑크푸르트로 갈 거야. 거기에서 정말 좋은 일자리를 얻었거든." (김형민 2007:17)
- d. "프랑크푸르트에 갈 거야. 아주 좋은 자리지." (한미희 2006:14)

(6a)에서 inquit-요소를 포함한 상위문장 'erklärte Dete'가 피전달문에 삽입되어 있다. (6a)의 이야기장면은 이모 데테가 하이디를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일자리를 찾아 프랑크푸르트에 가려고 하이디를 데리고 알프스 고원을 오르던 중간에 지인 바르벨을 만나 이야기하는 상황의 한 장면이다. (6b)와 (6d)는, (6c)와 달리, 원천텍스트의 피전달문을 유도하는 상위문장을 번역텍스트에서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번역자가 이야기의 흐름을 끊지 않고 독자에게 이야기전개의 속도감과 긴장감을 주려고 재맥락화한 듯하다. 그에 반해 (6c)는 원천텍스트를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7. a. »Jetzt seh ich's« erklärte die Barbel; »siehst du dort?«, und sie wies mit dem Zeigefinger weitab vom Bergpfad. »es klettert die Abhänge hinauf mit dem Geißpeter und seinen Geißen.« (Spyri 2000:14)
- b. 바르벨이 말했다. "저기 있네. 저기 보여?" 바르벨이 집게손가락으로 멀리 있는 산길을 가리켰다. "페터랑 염소들을 몰고 언덕을 오르고 있잖아." (김영진 2006:17)
- c. 바르벨이 소리쳤다. "저기 있어. 저기 보이니?" 바르벨은 저 멀리 아래에 있는 산길을 집게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염소치기 페터가 염소들이랑 비탈길을 올라오고 있어." (김형민 2007:21)
- d. 바르벨이 저 멀리 아래에 있는 산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제 보이네. 저기 보이지? 염소 치기 페터랑 염소들이랑 같이 언덕을 올라오고 있잖아." (한미희 2006:17-18)

(7a)에서는 inquit-요소를 포함한 상위문장 'erklärte die Barbel'과 지시문 'und sie wies mit dem Zeigefinger weitab vom Bergpfad'이 피전달문에 삽입되어 있다. (7a)의 이야기장면은 이모 데테와 바르벨이 이야기하는데 정신이 팔려 하이디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하이디를 찾는 상황의 한 장면이다. (7d)는, (7b)와 (7c)와 달리, 피전달문을 유도하는 상위문장과 지시문을 한 문장으로 합쳐 재맥락화한다. 이는 번역자가 피전달문의 흐름을 중간 중간 끊지 않고 이야기전개의 속도감과 현장감을 주려는 번역전략인 듯하다. 한편 (7c)는 이야기상황을 묘사하는 지시문을 inquit-요소가 있는 상위문장으로 재맥락화한다. 이는 독자가 피전달문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려는 번역전략인 듯하다.

- 8
- a. »Was wollt Ihr aus dem Kinde machen?«, fragte jetzt der Herr Pfarrer. »Nichts, es wächst und gedeiht mit den Geißen und den Vögeln; bei denen ist es ihm wohl und es lernt nichts Böses von ihnen.« (Spyri 2000:75)
 - b. 목사가 다시 물었다. "아이를 장차 무엇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특별히 뭐가 안 돼도 좋소. 아이는 염소와 새들 사이에서 무럭무럭 잘 크고 있소. 그것들과 함께 생활하면 늘 평화로울 거예요. 나쁜 짓을 배우는 일도 없겠지요." (김영진 2006:104)
 - c. 목사님이 다시 물었다. "아이를 장차 어떤 사람으로 키울 생각이세요?" "딱히 특별한 뭔가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 아이는 염소와 새들과 함께 무럭무럭 잘 자랄 거예요. 저 아이는 동물과 함께 살면서 늘 평화로울 거예요. 물론 동물들한테서 나쁜 짓을 배우는 일도 없을 테고요." (김형민 2007:110)
 - c. 목사님이 물었다. "장래에 아이를 뭐로 만들 생각이세요?" "아무것도 안 돼도 좋습니다. 저 아이는 염소들과 새들과 함께 무럭무럭 잘 크고 성장할 겁니다. 염소와 새들과 함께 사는 게 좋을 거예요. 나쁜 짓을 배우지도 않을 테고." (한미희 2006:102)

독일어 직접 이야기재현 구문에서 inquit-요소를 포함한 상위문장 übergeordneter Satz이 피전달문 다음에 위치할 수 있다. 그 예가 (8a)이다. (8a)의 이야기장면은 할아버지가 하이디를 학교에 보내지 않자 마을의 목사님이 알프스 고원의 할아버지를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의 한 장면이다. (8b-d)는 독일어 원천텍스트의 구문과 달리 inquit-요소를 포함한 상위문장을 피전달문 앞에 위치시킨다. 이는 해당 피전달문과 그 다음 이어지는 할아버지의 대답과의 연결성과 응집성을 고려한 번역자의 번역전략에 기인하는 듯하다. 번역자는 inquit-요소를 포함한 상위문장을 원천텍스트와 달리 피전달문에 선행시킨다. 이런 재맥락화 과정을 통해 목사님의 질문 바로 다음에 할아버지의 대답이 이어진다.

- 9.
- a. »Dann will ich gar keine mehr mitnehmen. Aber, Großvater, warum hat der Raubvogel so gekrächt?«, fragte Heidi nun angelegentlich. (Spyri 2000:52)
 - b. "그러면 다시는 꽃을 꺾어 오지 않을래요." 그러더니 곧 이어 호기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할아버지, 독수리는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김영진 2006:71)

- c. “그럼 다시는 꽃을 꺾어 오지 않을래요.” 하이디는 이내 호기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런데 할아버지, 독수리는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울어 대는 거죠?” (김형민 2007:76)
- d. “그럼 이제부터는 한 송이도 안 갖고 올래요. 그런데 할아버지, 독수리는 왜 큰 소리로 울어요?” 하이디는 정말 알고 싶어서 물었다. (한미희 2006:71)

(9a)는, (8a)와 마찬가지로, 독일어 직접 이야기재현 구문에서 피전달문이 inquit-요소를 포함한 상위문장에 선행한 예이다. (9a)의 이야기장면은 다음 이야기상황에서 나온다. 하이디가 알프스 고원의 할아버지 오두막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야생화를 꺾어 작은 앞치마 속에 넣고 와 할아버지에게 자랑하려고 한다. 그러나 꺾어온 꽃들이 다 시들어 있자 하이디는 실망하여 할아버지에게 그 이유를 묻는다. 할아버지는 하이디에게 꽃들이 앞치마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고, 풀밭에 살기 원한다는 대답한다. 그 대답에 이어지는 이야기 장면이 바로 (9a)이다. (9b-d)는 원천텍스트의 구문과 마찬가지로 피전달문을 상위문장에 선행시키는 공통점을 가진다. 특히 (9d)는, (9b)와 (9c)와 달리, 원천텍스트의 형식적 측면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한편 (9b)와 (9c)의 번역자는 원천텍스트의 형식을 변형시켜 재맥락화한다. 두 개의 발화 내지 문장으로 구성된 피전달문이 상위문장의 삽입을 통해 둘로 나뉜다. 이는 피전달문의 내용이 두 가지 각기 다른 사태 Sachverhalt를 가리키며,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 듯하다.

5.2 소설 담화의 자유 직접 이야기재현 구문

직접 이야기재현은 피전달문을 유도하는 상위문장과 인용부호 속의 피전달문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피전달문을 유도하는 상위문장이 실현되지 않은 채, 인용부호 속의 피전달문으로만 이루어진 대화형식의 직접 이야기재현이 소설 담화에서 자주 등장한다. 본 연구는 이런 유형의 직접 이야기재현을 ‘자유 직접 이야기재현’이라 칭한다. 소설 담화에서의 자유 직접 이야기재현은 독자에게 등장인물들의 연속적인 대화를 보다 현장감 있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자아내기 때문, 특히 등장인물의 대화교대가 너무도 자명한 경우와 등장인물의 대화교대를 어려움 없이 분명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경우에 선호된다. 다음 (10a)는 소설 담화의 자유 직접 이야기재현의

한 예이다.

10. a. [...] während der Fahrt fing er nun mit Heidi ein Gespräch an: »Du wirst das Kind sein, das oben beim Alm-Öhi war, beim Großvater?«
- »Ja.«
- »So ist es dir schlecht gegangen, dass du schon wieder von so weit her heimkommst?«
- »Nein, das ist es mir nicht; kein Mensch kann es so gut haben, wie man es in Frankfurt hat.«
- »Warum läufst du denn heim?«
- »Nur weil es mir der Herr Sesemann erlaubt hat, sonst wär ich nicht heimgelaufen.«
- »Pah, warum bist du denn aber nicht lieber dort geblieben, wenn man dir's erlaubt hat, heimzugehen?«
- »Weil ich tausendmal lieber heimwill zum Großvater auf die Alm als sonst alles auf der Welt.« (Spyri 2000:192-193)
- b. 빵집 주인은 아이가 왜 벌써 돌아왔는지 궁금해 먼저 말을 걸었다.
- “네가 저 위 고원 아재네 살던 애지? 네 할아버지네 집에 말이다.”
- “네.”
- “벌써 돌아온 걸 보니 있었던 곳이 아주 형편없는 데였나 보구나?”
-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프랑크푸르트처럼 좋은 곳은 없을 거예요.”
- “그럼 왜 다시 집에 왔니?”
- “제제만 씨가 허락해 주셨거든요. 안 그랬으면 못 왔을 거예요.”
- “흠, 아무리 집에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어도 그렇지, 거기가 그렇게 좋았으면 왜 거기 더 안 있었니?”
- “왜냐하면, 전 할아버지가 있는 알프스 고원이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백 배, 천 배는 더 좋으니까요.” (김영진 2006:261-262)
- c. 빵집 주인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하이디에게 말을 걸었다.

“네가 알프스 고원 아저씨 오두막에 살던 아이지? 네 할아버지 오두막에서 말이다.”

“네.”

“그렇게 먼 데서 벌써 집으로 돌아온 걸 보니. 네가 있었던 집에서 잘 지내지 못했던 모양이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도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었을 때만큼 잘 지낼 순 없을 거예요.”

“그럼 대체 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니?”

“제제만 씨가 허락해 주셨거든요. 안 그랬으면 저는 집에 다시 올 수 없었을 거예요.”

“흥, 아무리 집에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받았어도 그렇지. 거기가 네 마음에 그렇게 썩 들었다면 왜 더 오래 머무르지 않았니?”

“왜냐하면 전 알프스 고원에 있는 할아버지 오두막이 백 배 천 배는 더 좋거든요. 전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우리 집이 더 좋아요.” (김형민 2007:275-276)

d. 빵집 주인이 말을 걸었다.

“고원 아재네 집에 살던 애지? 아재가 아마 할아버지지?”

“예.”

“그렇게 먼 데서 다시 오는 걸 보니 지내기가 좋지 않았나 보지?”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도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만큼 잘 지낼 순 없을 걸요.”

“그럼 도대체 왜 왔니?”

“제제만 씨가 허락했으니까요. 안 그랬음 짐에 다시 올 수 없었을 거예요.”

“흥, 허락을 했다고 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왜 거기 더 있지 않았느냐 말이다.”

“할아버지 집이 백 배 천 배 더 좋으니까요. 전 이 세상에서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10a)은 하이디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다시 할아버지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도중, 빵집 주인의 마차를 타고 알프스 고원으로 가면서 빵집 주인과 나눈 이야기이다. (10b-d)의 번역자는 원천텍스트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텍스트를 재맥락화한다. (10a-d)과 같은 자유 직접 이야기재현은 피전달

문을 유도하는 상위문장의 개입으로 인해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는 것을 막고, 이야기를 재현하는 동안 독자의 긴장도, 몰입도, 주의력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말하기 내지 글쓰기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6. 나가는 말

이야기를 재현하는 사람은 이야기재현을 통해 수용자에게 자신의 각본을 따른 '한 편의 드라마 ein Drama'를 연출 Inszenierung하여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야기재현은 어떤 이야기 자체 또는 어떤 이야기의 내용을 단순하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재현하는 사람이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 듯이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인지적 의사소통행위이다. 그래서 이야기재현은 한 이야기상황에서 탈맥락화 과정을, 또 다른 이야기상황에서 재맥락화 과정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야기재현 현상은 문법과 통사구조, 의미와 논리구조 등과 같은 언어의 미시적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룰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편 독일어(출발언어) 원천텍스트가 언어·문화적 경계를 넘어 한국어(목표언어)의 번역텍스트로 옮겨질 때, 이야기재현에서와 마찬가지로 탈맥락화 과정과 재맥락화 과정이 일어난다. 번역자는 우선 자신의 언어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원천텍스트를 원래의 상황·의미적 맥락에서 탈맥락화시킨다. 그 다음에 번역자는 목표언어의 독자와 소통하기 위해 원천텍스트의 언어코드를 목표언어의 코드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나서 번역자는 자신의 번역전략을 염두에 두고 전환된 언어코드를 새로운 상황·의미적 맥락으로 재맥락화시킨다.

본 연구자는 직접 이야기재현 및 자유 직접 이야기재현과 번역작업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탈맥락화 과정과 재맥락화 과정의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번역자의 번역전략을 추론해보았다. 그러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해 간접 이야기재현, 자유 간접 이야기재현, 이야기보고 등과 같은 다른 유형의 이야기재현 현상을 살펴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자는 후속 연구를 통해 아쉬움을 달래고자 한다.

References

- [1] Florian Coulmas, Reported Speech: Some General Issues, in: *Direct and Indirect Speech*, Edited Florian Coulmas, Mouton de Gruyter, Berlin & New York & Amsterdam, (1986), pp. 1-28.
- [2] Dieter Wunderlich, Redeerwähnung, in: *Pragmatik und sprachliches Handeln. Mit einer Kritik am Funkkolleg »Sprache«*, Edited Utz Mass & Dieter Wunderlich, Athenäum Verlag, Frankfurt am Main, (1972), pp. 161-188.
- [3] Gerhard Kaufmann, Die indirekte Rede und mit ihr konkurrierende Formen der Redeerwähnung, Max Hueber Verlag, München, (1976).
- [4] Hyeong Min Kim, Direkte Rede vs. indirekte Rede: Ein "unglücklich" verbundenes Begriffspaar, *Zeitschrift für Deutsche Sprache und Literatur*, (2005), No. 27, pp. 41-56.
- [5] Erich Prunč, *Entwicklungslinien der Translationswissenschaft. Von den Asymmetrien der Sprachen zu den Asymmetrien der Macht. 3., erweiterte und verbesserte Auflage*, Verlag für wissenschaftliche Literatur, Berlin, (2012).
- [6] Gero von Wilpert, *Sachwörterbuch der Literatur. 7., verbesserte und erweiterte Auflage*, Alfred Kröner Verlag, Stuttgart, (1989).
- [7] Ho Hyung Cho, A Study of Prolambanō and Ekdechomai from a Socio-Historical-Cultural Context, *Canon & Culture*, (2016), Vol. 10, No. 1, pp. 227-254.
- [8] Jean Delisle, *Translation: An Interpretive Approach*. Translated by Patricia Logan and Monica Creery, University of Ottawa Press, Ottawa, (1988).
- [9] Regine Schindler, Neues zur Entstehung von Heidi. Das Werk als Spiegel einer Frauenbiographie, in: *Johanna Spyri und ihr Werk - Lesarten. Mit einem Anhang «Briefe von Johanna Spyri an Verwandte und Bekannte»*, Edited Schweizerisches Institut für Kinder- und Jugendmedien, Chronos Verlag, Zürich, (2004), pp. 45-62.
- [10] https://de.wikipedia.org/wiki/Johanna_Spyri, Retrieved: May 1 (2017).
- [11] Walter Leimgruber, Heidi - Wesen und Wandel eines medialen Erfolgs, in: *Heidi - Karrieren einer Figur*, Edited Ernst Halter, Offizin Zürich Verlags-AG, Zürich. (2001), pp.167-185.
- [12] http://www.rossipotti.de/inhalt/literaturlexikon/autoren/spyri_johanna.html, Retrieved: May 1 (2017).
- [13] Mettina Kümmerling-Meibauer, *Klassiker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Ein internationales Lexikon*, J. B. Metzler, Stuttgart & Weimar, (2004), pp. 1014-1017.

- [14] Bettina Hurrelmann, Mignons erlöste Schwester Johanna Spyris >Heidi<, in: *Klassiker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Edited Bettina Hurrelmann, Fischer Taschenbuch Verlag, Frankfurt am Main, (1997), pp. 191-215.
- [15] Peter Skrine, Johanna Spyri's Heidi, *Bulletin of the John Rylands University Library of Manchester*, (1994), Vol. 76, No. 3, pp. 145-164.
- [16] Anne Thaxter Eaton, A Broader Field, in: *A Critical History of Children's Literature. A Survey of Children's Books in English, Prepared in Four Parts under the Editorship of Cornelia Meigs. Revised Edition*, Edited Cornelia Meigs & Anne Thaxter Eaton & Elizabeth Nesbitt & Ruth Hill Viguers, The Macmillan Company, London, (1969), pp. 175-183.
- [17] Valentin Vološinov, *Marxism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Translated by Ladislav Matejka & I. R. Titunik,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 (1986).
- [18] Charles N. Li, Direct speech and indirect speech: A functional study, in: *Direct and Indirect Speech*, Edited Florian Coulmas, Mouton de Gruyter, Berlin & New York & Amsterdam, (1986), pp. 29-45.
- [19] Susanne Günthner, Direkte und indirekte Rede in Alltagsgesprächen. Zur Interaktion von Syntax und Prosodie in der Redewiedergabe, in: *Syntax des gesprochenen Deutsch*, Edited Peter Schlobinski, Westdeutscher Verlag, Opladen, (1997), pp. 227-262.

